이 이 지경에 이르다니, 내 부끄러워 죽고 싶구나 ' 하였다.

드디어 강홍립은 세상을 등지고 고향 별서別墅에서 두문불출하고 혼자 헛소리로 눈물지며 백치같이 실성하여 중얼거렸다.

" 천간 큰집에 비단과 황금 만필이 쌓인 가운데 꽃같은 얼굴의 미인이 있었거늘 은혜를 끊고 사랑을 참으며 인수印綬를 띠고 강을 건너 돌아왔도다. 숙부의 연고가 아니었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과연 한윤의 말이 나를 속이지 않았구나. "

한편 소녀는 강홍립이 조선에서 돌아오지 않자 후금 태종太宗 홍태시에게 울며 간청하여 허락을 얻고 조선으로 달려와 곧바로 경성京城에 이르렀다. 조정에서는 경성 초입에서 그를 잡아두고 금장金將의 처분을 기다리게 했다. 소녀는 심혈로 쓴 밀서를 봉하여 백금百金을 주고 사람을 구해 강홍립에게 전하게 하였다. 강홍립이 이를 받아 보니 분의 향내와 눈물로 얼룩져 그 애원哀怨이 손에 잡힐 듯하였다.

" 첩妾이 깊은 규중에서 자라 일찍 부녀婦女의 정절을 배웠는데 박명薄命하고 험난하여 황사黃沙를 걸어 지나게 되어서는 왕소군王昭君의 청총靑塚에서 눈물이 말랐습니다. "

이렇게 시작된 소녀의 서신은 그 애절함이 극하니 읽기를 마친 강홍립이 눈물을 비오듯 쏟고 거의 미쳐 울부짖으며 소녀가 있는 곳으로 질주코자 하니 가동家童이 막았다. 강홍립이 ' 내가 임금 앞에서 10년을 환거鰥居하였다 하였는데 온세상 사람이 나를 무어라 할 것인가. 반드시 임금을 속인 죄를 무겁게 할 것이다. 하물며 저 서신중에 죽어 만날 것을 기약했는데 내가 어찌 강안强顔으로 세상에 살아 저 실세의 무리에 조롱받으며 지하에 들어가는 고혼을 등지겠는가. 내 맹세코 구천으로 따르리라 ' 하고 식음을 끊고 와병하여서는 10여일에 일어나지 못했다. 임종에 강홍립은 몸종에게 ' 내가 일찍 등과하여 청현직淸顯職을 거듭 드날렸더니 만년의 절개가 기구하여 세상에 가련하게 되었다. 선함에 복을 주고 음란에 화를 내림 하늘의 도리이다. 평생의 일을 기억하기 어려우나 오로지 젊어서 탁예卓銳하여 대각臺閣에 출입하면서 남을 흘기고 상해한 것이 한둘 아니었으니 하늘이 이로써 이 같이 악보惡報하는가. 높고 높은 상제上帝가 혁혁히 내려 임하니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속일 수가 없다 ' 하고는 가득한 눈물로 죽었다. 진창군 강인은 그 죽음에 곡하고 선영에 장사하도록 허했는데 지금도 그 앞을 지나는 자가 ' 강추분姜芻墳 이라 손가락질한다고 한다.

나(저자)는 일찍이 강홍립이 선조先朝(광해군조)의 시종신侍從臣으로서 은의恩義를 돌보지 않은 것을 아프게 여겼는데 하나는 전군사로 오랑캐에게 투항함이고 둘은 생민을 도살한 것이고 셋은 장수로서 임금될 마음을 품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대강을 거칠게 듣고 자세히는 알지 못했는데 해서 海西의 묘향산妙香山에 노닐다가 한 노승을 만나니 자못 총명하고 문자를 알았다. 그 낯에 화살 흉터가 있는지라 이상하여 물으니 찌푸리면서 대답을 아니하다가 재우쳐 물으니 말하기를 ' 아무가 젊어 산수를 좋아하여 기이한 승지를 찾아 다니다가 우연히 금강金剛의 불사에서 홍립을 만났소. 일견에 친숙해져 그 서기書記가 되어서는 잠시도 떠남이 없더니 무오년戊午年(광해군 10, 1618년) 이후에는 몸이 서정군西征軍을 좇아 간험艱險을 다 갖추어 겪었는데 홍립이 죽기에 이르러 다시 삭발하고 중이 되어 이에 이르렀소이다 ' 하더니 손으로 낯의 상흔을 가리키며 ' 만약 홍립이 도적을 이끌고 동국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부모가 주신 몸을 훼손하였겠소 ' 하고 울음을 참느라 말을 못했다. 대개 안주성에서 화살을 맞은 것이었다. 인하여 노승이 무오년부터 정묘년까지의 일을 조목으로 나열하여 앞서와 같이 소상히 말하고는 ' 빈도貧道가 강홍립과는 정의가 골육과 한가지라 이같은 일의 전말을 깊이 숨겨왔는데 이번에 거듭 묻는 바람에 불각에 토실吐實하였소이다. 내 입에서 나와 그대의 귀로 들어갔으니 가볍게 퍼뜨리지 마시오 ' 하였다. 아아, 중의 무리도 오히려 그 주인을 등지지 않거늘 제 임금을 향해 짖는 도적이 도리어 의관세족衣冠世族에서 나왔으니 어쩌겠는가. 하늘에 사무치는 죄와 천고에 없는 흉을 말해도 된다 하여 이야기하자면 길어질 뿐이다.

숭정崇禎(명 의종毅宗) 경오庚午(1630) 가을 무언자無言子가 쓰다.

■안상서전安尙書傳

만력萬曆(중국 명 신종神宗 연호, 1573~1619) 말기에 안여식安汝式이란 사람이 있으니 자字가 경숙敬叔이고 당강唐絳이란 이는 자가 화숙華叔인데 둘이 다 탁군涿郡(하북성 탁현涿縣, 북경 근처) 누상촌樓桑村(삼국시대 유비、관우、장비가 난 곳)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친히 지내며 문학으로 이름이 있었다. 장성하여 안여식은 각로閣老(재상) 방종철方從哲의 사위가 되고 당강은 장공주長公主(황제의 누이) 이황친李皇親(황제의 친척 이씨)의 사위가 되었다. 안여식이 먼저 과거를 하여 한림원翰林院에 뽑혀 서길사庶吉士가 되니 당강도 수년 뒤 급제하여 한림원에 편수編修로 들어갔다.

이 무렵 방각로가 죽고 만력황제 또한 붕서崩逝하여 천계天啓 황제 희종熹宗이 즉위했다. 안여식은 언론의 일로 황제의 뜻을 거슬러 먼 사천四川 무녕武寧의 지현사知縣事로 쫓겨나갔다. 그러나 당강은 황제의 인척으로서 총행을 받아 예부시랑禮部侍郎을 거쳐 동각東閣의 태학사太學士로 발탁되니 그 영광과 은총이 견줄 데 없었다. 그리고 온덕전溫德殿 태학사와 이부상서吏部尙書가 되었는데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배척하였다. 안여식은 임기를 마치자 집으로 돌아와서는 늘 앙앙불락怏怏不樂하는 마음으로 지내다가 늙은 어버이를 받든다는 구실로 외직外職을 구해 하북의 통주通州 수령이 되어 나갔다. 그리고 얼마 안있어 그마저도 그만두고 돌아왔고, 그러던 중 하루는 당강을 찾아가 산동山東의 포정사布政使 자리를 주선해 줄 것을 청했다. 당강이 ' 자네의 재주로서 의당 조정의 기무機務를 도와 태평세월을 함께 누려야 하니 잠시 기회를 보세나 '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안여식은 당강이 탐욕스럽고 방종한 것이 싫어 이를 비루하게 여겼으나 옛친구의 정으로 찾아보는 것이되 자주 찾지는 않았다. 당강은 이를 내심으로 불쾌히 여겨 이같이 회피했다.

숭정崇禎(명 의종毅宗, 1628~1643) 황제 초기에 이르러 당강은 더욱 황제의 신임을 얻으면서 환관宦官과 결탁하니 안팎의 대권이 오로지 당강 한 사람에게 돌아갔다. 그러다가 환관으로서 권세가 막강하던 고기잠高起潛과 틈이 벌어졌다. 당강이 권세를 오로지하고 재물을 탐내며 조정을 더럽힌다는 탄핵소가 올라오게 되니 마침내 그 가산이 몰수되고 관직이 삭탈되었다. 다만 그가 이황친의 사위인 까닭에 유배되어 죽는 형은 면하고 벼슬없는 몸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게 허락되었다.

예부상서禮部尙書 왕태로王台老(태로는 재상을 일컫는 경칭)는 평소 안여식이 당강에게 아부하지 않았음을 알고 그를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삼아 조정의 큰일을 맡기도록 황제께 아뢰었다. 안여식이 이에 세 차례 상서하여 사직하였는데 환관들은 그의 강직함을 꺼린 나머지 그가 문무의 재주를 겸비하고 있다고 하여 어사御史를 삼아 요녕遼寧의 요주遼州와 광주廣州로 내보내 군사의 일을 보게 하였다. 안여식은 명을 받은 날로 임지로 떠났다. 산해관山海關에 이르러 보니 어른 하나와 소년 셋이 저자에서 구걸을 하고 다니는데 그게 바로 당강 4부자였다. 안여식이 수레에서 내려 그 손을 잡고 눈물지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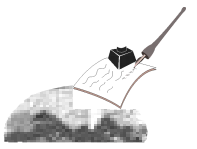
" 화숙華叔, 그간 무양無恙하신가? 작별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갑자기 이 지경이 되었는가? "

당강은 제대로 머리를 들지 못하고 그저 ' 감히 못하겠다 ' 는 소리만 할 뿐이었다. 안여식이 금 50냥과 비단 20필을 내주며 ' 내 행탁行橐이 충분치 못하여 이 물건이 약소하네만 형이 몇달 지낼 자금은 될 걸세. 관을 나서면 또 마땅히 약

7면으로 계속

능동칼럼

3·1운동과 세계의 해방운동



權 海 兆
편집위원

올해로 우리나라의 3、1운동은 90주년을 맞았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되어 전국방방곡곡에서 ' 조선독립만세 의 함성이 울려 메아리진 지 90년이 된 것이다. 그동안 이 운동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고 올해에도 국제학술대회 등이 열리고 있으며, 우리 헌법 전문前文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 도처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1운동은 계층과 이념을 초월한 민족정신으로 뭉친 자주독립운동이었다. 일제 무단정치하의 억압과 수탈 및 민족혼 말살의 식민교육을 받음에 굴하지 않고 궐기하여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만방에 알려 민족독립을 선언하고 국민주권에 의한 대한민주공화국의 임시정부까지 세웠다. 이는 온겨레가 종교나 계층, 지역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한마음으로 참여한 역사적 운동이었다. 학계에서는 3、1운동이 '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태동시켜 1919년 4월부터 1945년 8월 해방시까지 26년 4개월 동안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정부조직체 중심의 반식민투쟁을 전개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였으며 독립의 당위성과 인류가 지향할 범세계적 이상과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고 보고 있다.

또한 3、1운동은 반제국주의 투쟁의 선봉으로서 세계 식민국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당시 3、1운동은 제국주의가 식민지 쟁탈전을 벌여 맹목과 혈안일 때에 이를 비판하고 맞서 저항하는 투쟁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서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다. 3、1운동 후 사오일 뒤부터 시작된 인도 국민회의파의 비폭력 독립운동이 이를 뒤이었고 그해 5월초에는 중국에서 5、4운동이 일어났다. 6월에는 미국의 식민지이던 필리핀에서 대학생들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영국의 식민지 이집트와 아랍지역에서 배태하고 있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근대사연구소 경운지耿雲志 연구원은 ' 3、1운동은 중국인과 중국청년을 크게 고무시키고 진보언론의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고 평가했다. 우리의 3、1운동과 중국의 5、4운동은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청년학생이 선봉에 서서 일제라는 동일의 적과 맞서 싸웠다. 이러한 연관성으로 한국의 독립운동가는 중국인의 반일투쟁을 지원했고, 중국의 진보적 당파와 인민의 적극적 지지와 원조를 받았다.

결국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 독립 쟁취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면서 그 영향이 해외로 퍼져 새로운 세계질서 성립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18년에 1차세계대전이 종식되자 세계적으로 민족해방운동이 일어나 민족독립과 건국이라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성립되는 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독립선언문을 통해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잘못을 지적하고 인도주의를 내세워 인류가 평화공존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은 세계식민지 가운데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 대열의 선두에 선 셈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이러한 정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이뤄가는 모범적인 과정을 남에게 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3、1운동의 33인 민족대표 중에는 우리 안동권씨에서 애당愛堂 권동진權東鎭、청암淸菴 권병덕權秉悳 2인이 참여해 있다. 이 때문에도 3、1운동이 우리 권성인에게 더욱 뜻이 깊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의 90주년을 맞은 지금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서도 남북문제를 둘러싼 이념대립과 동서의 지역 및 좌우의 심리갈등이 뼈속으로까지 심화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다시 3、1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보다 신선한 훈풍일 것처럼 느껴진다.